

## (2) 무 계

김순태의 무계는 외가와 닿아 있다. 김순태의 아버지 김세원은 본래 단골이 아니었으며, 집안도 무계와 관련이 없었다. 김세원은 무안 해제가 고향이며, 3형제 중 둘째였다. 총각 때 김세원은 해제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포수였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일제가 포수들을 징병하여 전쟁터로 끌고가려 했기 때문에 김세원은 고향을 떠나 이름도 김동근으로 바꾸고 별교로 오게 되었다. 별교에 와서는 당시 단골 집안이었던 정씨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였다. 그렇게 지내다가 정씨의 딸과 결혼하여 무업을 하게 되었다. 머지않아 정씨가 죽었는데, 곧 단골 가계의 박태심과 재혼하였다.

한편 김씨가 무업을 한 뒤로 무안의 형제들과는 영영 인연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쪽에서 단골과 형제가 될 수 없다며 연락을 단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세원은 9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서 무업을 이은 아들이 김순태다. 김세원의 자녀들은 부모의 무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무계를 잇고 있는 김순태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단절하고 지낸다. 김순태는 무계 출신인 박경자와의 사이에서 3남 3녀를 두었는데, 그들 중 아무도 무업을 잇지 않았다.

박경자는 정통 세습무 집안 출신이다. 그러나 박씨 형제들 중에서 무업을 잇고 있는 사람은 박씨 혼자이다. 박씨의 무계에서 특히 서씨 할머니는 기능이 뛰어난 단골이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박씨가 서씨 할머니의 정기를 이어받았다고 말한다. 그 할머니 형제로부터 비롯된 단골들이 순천과 율촌 등지에서 단골판을 세습했다고 한다.